

## 전국 최강 광주시청 육상팀

## “인천AG 금메달 2개 따겠다”



김덕현

박태경

배찬미

이성

김민규

광주시청에 육상 경예들이 뭉쳤다.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의 메달을 훨슬기 위해서다.

육상팀 15명 중 5명은 이미 태극마크를 달았고, 2명은 바짝 다가섰다. 한 팀에서 국가대표 5명은 우리나라 사상 최다로, 전체 국가대표 30명 중 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의 목표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내보내 2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모두 금메달을 쟁취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김덕현(30·사진), 박태경(35·사진), 배찬미(여·24·사진), 이성(27·사진), 김민규(26·사진), 박영석(26), 임희남(31) 등이다.

대표주자는 김덕현. 그는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는 세단뛰기 우승을 차지했다.

김덕현은 올해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세단뛰기와 멀리뛰기 모두 금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단뛰기 17m10, 멀리뛰기 8m20으로 두 종목 모두 한

## 5명 국가대표 발탁

## 전국체전 금 쟁취 목표

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여자 김덕현’으로 불리는 배찬미도 기대주다. 배찬미는 멀리뛰기(6m36)와 세단뛰기(13m46) 모두 국내 최고수 자리에 위치해 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메달을 노려볼만 하다.

다크호수이자 비밀병기는 박태경이다.

지난 2월 국가대표 육상팀 플레이오프를 박차고 선수로 복귀한 박태경은 남자 110m하들의 독보적 존재다. 13초48의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한 박태경은 기록을 13초40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0년 광주아시안게임 동메달에 그친 한도 기록을 뛰어넘겠다는 각오다.

높이뛰기의 이성(2m26)과 100m·200m릴레이의 김민규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이들 외에 해마다 기록을 세우는 박영석과 100m 임희남도 6월이면

국가대표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희남은 2012년 전국체전에서 100m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근육통으로 뛰지 못했다.

특히 그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10초32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했지만,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선에서 10초23을 기록한 김국영에게 넘겨줘야 했다. 6월 태극마크를 달아 도난당한 한국신을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다.

심세용 감독은 “국가대표 7명을 배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하고, 10월 전국체전에서 이를 7명 모두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전국 최강 광주시청 육상팀의 시나리오”라며 “결코 욕심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후진 전남육상경기연맹 전무 이사(목포공고 지도자)는 “단일팀에서 5명의 국가대표가 탄생하기는 사상 처음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숙기자 jwpark@

## 응원팀은 다르지만 야구사랑은 한마음

## 제3기 기록강습회 성료

농협광주본부·광주일보 후원

남녀노소, 지역과 응원팀은 달라도 야구에 대한 열정은 같았다.

광주시야구협회(GBA)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SKBR)가 주최한 제3기 기록강습회가 지난 15·16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성료됐다.

선착순 40명, 무료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자비를 들여서까지 강습회에 참가한 이들이 있을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겨울 야구를 시작한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엄마, 스포츠 기자가 꿈인 중 2 남학생, 사회인 야구 심판으로 활약하며 기록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여성 야구꾼, 40년 넘게 그라운드에 빠져 지내는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와 사연을 간직한 이들이 야구라는 교집합 속에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마산·대구·인천·완도 등 수 강생들의 지역도 다양했다.

광주야구발전사,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에 대해 공부한 이들은 KIA와 두산의 시범경기를 보면서 실제 야구 기록을 하고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야구가 좋아서 주말의 휴식도 마다하고 모인 이들이지만 야구를 잘 모르는 ‘야구 초보’도 있었다. 이번 강습회에서 가장 면길을 달려온 인천



16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된 제3기 야구기록강습회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지와 수료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가씨 최나라(26)씨는 강습회를 통해 야구를 배운 야구초보다. 강습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도 특별했다.

인천 동산고 출신의 포수 현천웅을 응원하시는 어머니가 적극 추천해 광주를 찾게 됐다.

최씨는 “나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야구와 현천웅 선수를 응원해 신다. KIA 관련 사이트에서 강습회 소식을 접하시고 가보라면 차비를 행겨주셨다. 사실 기록이 있는 줄도

몰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걸 얻어 가는 것 같다. 엄마께 배운 것을 알려드리겠다”며 “새 구장을 뜯고 보는 게 아쉽기는 하다. 나중에 엄마와 야구장 나들이를 와야겠다”고 웃었다.

광주에 사는 LG CNS 박대근(41)씨에게는 함께 야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박씨는 “충북이 고향인데 일때문

에 광주에서 살고 있다. 응원 팀은 달라도 마음은 같았다.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야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매력적이었다.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근),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MCG, 조선이공대학교, 복지법인 협회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올해는 광주 야구 도약의 해”

나훈 광주시 야구협회장

## “인프라 확충 노력하겠다”

“제재미있는 야구, 더 풀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야구기록강습회를 마무리한 광주시야구협회가 2014시즌



고 설명했다.

또 “농협중앙회광주본부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등 많은 분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셨다. 더 많은 분들이 야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내년 강습회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강습회에 이어 광주시야구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부분은 인프라 확충이다. 야구자연 확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나 회장은 “광주의 야구인구에 비하면 야구장이 빡없이 부족하다. 관계 기관 등과 잘 협의해 야구장을 확충하겠다”며 “일단 리틀 야구의 중심인 본량 리틀 구장이 재단장하게 됐다. 정식구장으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일보스포츠 3월23일(일) 경남고성(충주) 연화산·광주체육관 07:20, 대인광장 07:30, 각화동 출입구 07:40 ※다음카페 광주광주포스터

▲한국프로야구 3월23일(일) 대구·부산 07:30※다음카페 광주광주포스터